

제 47 호

www.gistnews.co.kr

2022년 6월 6일 월요일

보도

GIST에도 일상회복 찾아오나

> 2 면

기획

KENTECH·GIST 관계는

> 3 면

보도

학생식당 가격인상

> 4 면

5.18 특집

42주년 5.18 기념식

> 6 면

GEL 사이트, 드디어 개편된다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표했던 GEL(GIST e-Learning System, 이하 GEL) 사이트가 새로운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으로 바뀐다. 교육혁신센터는 신규 LMS를 2022년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GEL 이전의 조창기 LMS는 학부생 오승용 씨가 2012년에 개발한 G-class였다. 당시에는 2010년 구축된 대학 서버를 이용해 학사과정용으로만 운영됐다. 이후 2016년, 외부 개발업체인 (주)토마토시스템에서 Linux OS와 학습플랫폼 소프트웨어 Moodle 2.8.5를 기반으로 LMS를 개발해 현재의 GEL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2020년 7월 교육혁신센터가 신설되면서 기초교육학부에서 담당해 오던 GEL의 운영이 이관됐다.

이관 이후 교육혁신센터는 GEL의 개편을 지속해서 검토해왔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GEL 이용자가 1.8배가량 폭증하면서 접속 지연, 이전 학기 자료 활성화 오류, 권한 사라짐 등의 오류가 다수 보고됐다. 진단 결과, 오류의 주된 원인은 낮은 버전의 Moodle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드러났다. 이에 센터 측은 GEL 기능 향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했다. 교육혁신센터 김희삼 센터장은 “GEL의 개선을 위해 원내 설문조사 및 역대 사용 현황 분석, GEL 유지



보수업체 및 유관부서와의 회의, 타 대학 LMS 현황 분석 및 장단점 비교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교육혁신센터는 GEL 사이트의 신규 LMS 구축을 위한 업체로 (주)유비온을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기능의 다양성, 유지보수 인력 확보의 용이성, 기존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 이전과 포털과의 연동 용이성, 라이선스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최신 버전의 Moodle를 플랫폼으로 사용해 신규 LMS를 개발했다. Moodle은 현재 KAIST, POSTECH, 서울대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다. 또한, 모바일 앱 연동으로 시간 및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학습관리를 도울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지난 3월에 개발이 완료된 신규 LMS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기존 GEL 내 축적된 데이터가 이전 과정에서 사라질 것을 우려해 2022년 상반기 종강 직후 이전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신규 LMS 사용을 사전 신청한 교수의 교과목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 A는 “업로드된 수업 녹화본 시청을 LMS로 이용하고 있다. 기존 GEL 사이트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깔끔한 UI(User Interface)를 갖추고 있어 편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만, 카테고리 분류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전했다. 정식 이용이 아니더라도 GEL 사용자라면 신규 LMS 주소로 접속해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사이트에 제공된 매뉴얼이나 Q&A 템, 메일을 통해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 GEL은 ‘지스트 정원’ 사이트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만큼 불편한 점이 많았다. 교육혁신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음 학기부터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규 기자 solomoncsk0225@gm.gist.ac.kr

신규 LMS에는 모바일 앱 연동 등의 부가 기능도 탑재된다. 우선, 기존 GEL에서 Mac 사용자의 접속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됐다. 또한, 사이트 접속에 기기와 브라우저가 제한받지 않고, 모바일 앱 ‘코스모스’와 연동되어 실시간 알림, 모바일 동영상 재생 기능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IBT(Internet-Based Test) 프로그램 기반 시험 관리·감독 강화, 자료 업로드 용이성 확대 등 기능적인 부문이 개선됐다. 김센터장은 “안정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신규 LMS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이

대면 수업·시설 개방, GIST에도 ‘일상 회복’ 찾아오나

대면 수업 및 학생 활동 확대 원내 공용시설 대부분 개방 자가진단 등 일부 방역수칙 유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며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GIST도 대면 수업 전면 허용, 공용 시설 개방, 학생 모임 및 행사 확대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대면 수업, 일부 허용에서 전면 허용으로 일부 소규모 강의나 실험, 실습 강의 예만 한정됐던 대면 수업이 모든 수업

에서 가능해졌다. 지난 5월 교무처는 대면 수업을 전면 허용하는 1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각 교과 담당 교수가 수업 상황이나 수강생의 의견을 반영해 대면 수업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학적팀 최발그미 팀장에 따르면, 개설된 학사과정 강의 중 현재까지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의 비율은 약 56%다. 강의실 내 ‘한 칸 띠어 앉기’ 역시 해제됐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등 최소한의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최 팀장은 “GIST에는 소규모 강의실이 많다.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져 한

칸 띠어 앉기가 다시 시행될 경우 전면 대면 수업은 힘들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현재의 방침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팀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여름학기에도 대면 수업이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2학기 학사 운영 방향은 교육부의 대학 학사 운영방안 발표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내 공용시설 개방 및 여름학기 신규 입소 대상 확대 원내 공용시설의 개방도 추가로 이루어

졌다. 지난 5월부로 동아리실, 생활관 내 체력단련실, 커뮤니티실 등이 개방됐다. 또한, 6월 2일부터 수영장, 요가실, 클라이밍장이 추가로 개방됐다. 다만, 코인노래방의 경우 아직 폐쇄된 상태다. 학생팀 민경숙 팀장은 “코인노래방은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노래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말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며 해당 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을 설명했다. 민 팀장에 의하면 코인노래방의 운영 여부는 6월 중 학생팀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2면으로 이어짐〉

보도

동아리, 행사도 대면 단체활동 가능하다

< 1면에서 이어짐 >

여름학기 기숙사 신규 입소 신청 대상 역시 확대 됐다. 민 팀장에 의하면, 다가오는 여름학기의 신규 입소 허용 기준은 ▲여름학기 학사논문연구 수강자 ▲대학원 학부(과) 여름방학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공식 학술 프로그램 참가자이다. 지난 겨울학기와 달리 공식 학술 프로그램 참가자까지 입소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능동감시 제도가 올해 여름학기 입소부터 폐지된다. 민 팀장은 “신규 입소자는 본인 호실에서 바로 거주할 수 있고, 원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생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면 학생 활동 역시 전면 허용

5월부터 각종 학생 활동을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먼저 5월 4일부로 동아리실이 개방됐다. 밴드, 보컬, 연극, 영상, 체육 동아리의 경우 기본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대면 활동이 가능해졌다. 또한 5월 20일부로 워크숍, 대면 행사는 사전 신고 및 CV비상대책실무위원회 승인 절차가 폐지돼 대면 활동이 자유로워졌다.

방역 지침 완화에 발맞춰 대면 학생 행사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6일 문화행사위원회(이하 문행위)는 ‘여름, 밤, 캠핑’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동아리별 공연과 각종 체험 부스, 푸드트럭 등의 컨텐츠가 준비됐다. 문행위 오세훈(전경, 20)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체제를 거치며 무료했을 학우들을 위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즐길 수 있는 대면 행사를 최대한 늘리고자

GIST 원내 방역 수칙 변동 사항

수업	대면 수업	기준	변경 (2022년 5월부터)
		제한적 허용	전면 허용
집합 및 모임	강의실 내 방역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한 칸 띄어 앉기 폐지 (기존 방역수칙 준수)
	동아리실	폐쇄	개방
	학생 단체활동	비대면만 가능	대면 전면 허용
생활관	학생 행사	CV비상대책실무위원회 승인 후 가능	대면 행사 신고제 폐지
	공용공간	폐쇄	개방
공용 시설	여름학기 신규입소 기준	학사논문연구 수강자	학사논문연구 수강자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공식 학술 프로그램 참가자 개방 (5월 4일) 동아리실, 커뮤니티실, 생활관 세탁단면실 개방 (6월 2일) 수영장, 요가실, 클라이밍장 개방 여부 재검토 (6월 중) 코인노래방
		폐쇄	

삽화 = 주서현 기자

한다”며 앞으로의 행사 기획 방향성을 설명했다. 다만, 오 위원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 이전과 같은 대면 행사는 어려울 것 같다. 2학기에는 완전한 대면 행사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학생팀 민경숙 팀장은 대면 행사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 팀장은 “학교에서도 활발한 대면 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인지하

고 있다. 다만, 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민 팀장은 “체육대회는 상황이 나아진다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민 팀장은 축제에 대해서는 “연예인 섭외와 같은 문제는 코로나19 상황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며 방역 상황 외에도 고려할 요소가 많음을 시사했다. 오 위원장 역시 축제와 관련해서 “연예인 섭외나 대규모 행사와 관련해 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원 경영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EUS 자가진단시스템은 유지

ZEUS 자가진단시스템과 같은 일부 방역 지침은 여전히 남아 있을 전망이다. 안전팀 김익수 팀장은 “매일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율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ZEUS 자가진단시스템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원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며 원내 구성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학적팀 최 팀장과 학생팀 민 팀장은 “학생들의 노력 덕에 우리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큰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박준서 기자 pjsalex122@gm.gist.ac.kr

동문 기업인이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난 5월 19일, GIST 동문 기업 바이오에프디엔씨의 제 1호 코스닥 상장 축하 기념식이 오룡관에서 열렸다. 본 행사에서는 동문 기업이 일궈낸 성과를 축하고, 동문이 후학에게 창업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에프디엔씨는 2005년 생명과학부 정대현(04, 박사), 모상현(03, 석사) 동문이 공동 설립한 기업이다. GIST 재학 시절 같은 연구실 동료였던 두 대표는 식물세포 배양 생산기술을 상용화해 바이오에프디엔씨를 창업했다.

정 대표는 재학생 대상 강연에서 후배들에게 창업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바이오 소재를 통해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바이오에프디엔씨를 창업했다. 성공적인 회사를 만들기까지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처음 지녔던 창업 비전을 상기하며 헤쳐 나가야 한다”며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술 상용화 직전에 규제 법안이 통과돼 난항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정 대표는 “큰 변화를 불러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서비스는 기존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마련이다. 바이오에프디엔씨가 동물 줄기세포 사업에서의 위기를 식물 줄기세포에 집중하게 된 계기로 만든 것처럼 고난을 기회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 대표는 머지않아 GIST 동문 기업들이 모두 모여 함께 박람회

를 여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김기선 총장은 환영사에서 창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과학기술인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창업이다. 많은 학생들이 GIST에서 습득한 지식을 풀어내 좋은 일자리와 상품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총장은 이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고독한 일이다. 그럴수록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선배가 필요하다. 이번 기념식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후배들이 성공한 동문을 보며 자신의 비전에 대한 자신감과 창업을 향한 희망을 품게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종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바이오에프디엔씨가 세계 바이오 시장의 히든 챔피언¹⁾ 기업으로 성장 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또한, 동문과 후배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바이오에프디엔씨를 이어 더욱 많은 꽃을 피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기반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비롯한 GIST의 스타트업이 전남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정주 GIST 발전재단 이사장은 직접 기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나누며 창업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대학원을 졸업하고 산업 전선으로 뛰어든 정 대표와 모 대



(왼쪽부터) 김기선 총장, 정대현 대표, 모상현 대표, 고정주 이사장이 바이오에프디엔씨 코스닥 상장 기념 떡을 자르고 있다.

표의 용기를 강조하며 “후학들도 우리 사회의 가장 값진 곳에서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GIST 1기 졸업생인 오석중 총동문회장은 “황무지 위에 서 있던 학교가 30년 동안 성장하며 학교와 기업체, 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는 동문을 배출했다. 다만 기업가로 활약하는 동문의 수가 적은 것이 항상 아쉬웠다. 정 대표, 모 대표가 훌륭한 기업가가 되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후배들에게 GIST는 잠재력이 가득한 곳이라며 “GIST의 교육과 창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많은 학생이 바이오에프디엔씨를 이어 코스닥은 물론 나스닥까지 상장하는 쾌거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현빈 기자 chbeen02@gm.gist.ac.kr

1) 전문 분야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한 우량 강소기업(强小企業)

KENTECH과 GIST, 상호보완의 관계로 나아가야



KENTECH 본원 건물의 모습이다.

지난 5월 19¹⁾일 KENTECH이 설립 1주년 행사를 진행했다. <지스트신문>은 작년부터 이어진 시설 미완공 문제 해결 여부와 GIST와의 협력에 관해 KENTECH 윤의준 총장의 의견을 취재했다. 특별히, 지난해까지 GIST에서 근무하다 올해 KENTECH으로 부임한 박성주 교학부총장(前 GIST 신소재공학부 명예교수), 영어 강의를 전담했던 Jennifer Manning 교수(前 GIST 언어 교육센터)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

일부 시설 미완공 문제, 불편함은 없다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 중 하나로 대학 및 주요 시설 미완공 논란이 있었다. 개교 당시 강의실은 준비된 상태였으나, 기숙사는 2024년 완공 예정이었다. 2022년 5월 기준 KENTECH 캠퍼스는 풋살 경기장, 테니스코트, 농구장 등의 체육 시설과 본원 건물, 부영CC리조트 건물(에디슨 생활관, 테슬라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돼 있다.

현재 KENTECH은 부영CC 리조트를 임대해 ‘에디슨 생활관’이라는 이름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12평 및 14평의 방이 2인 1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숙사는 캠퍼스 본원으로부터 약 960m가량 떨어져 있다. 이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 측은 셔틀버스를 운용하고 있다. KENTECH 윤의준 총장은 “현재 시공 단계

에 있는 본원 기숙사 시설은 2023년 말 완공 예정이며, 임대해서 사용 중인 리조트보다 학생들에게 훨씬 편리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원 건물에는 강의실을 포함한 학생 이용 시설이 들어서 있다. 건물은 총 4층으로, 학생은 2층의 강의실과 3층의 도서관 및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학생 활동 중심의 강의를 지향하는 KENTECH의 특성에 알맞게 ALC(Active-Learning Classroom, 능동학습강의실)가 마련돼 있다. 학생들의 수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책상에 구비된 모니터를 이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윤 총장은 “ALC는 학생이 배운 내용을 몸소 느끼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강의실 형태”라고 밝혔다.

KENTECH 교육철학과 비전은

KENTECH은 융합 교육을 목표로 한다. 모든 학부생이 전공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에너지 공학부의 단일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듣는다. 다만 관심 분야에 따라 과목을 세분화하여 학생마다 다른 과목을 수강 할 수 있다.

특화된 영어 교육도 진행한다. KENTECH에서는 신입생 때부터 연구 활동에 접목되는 영어를 배운다. 주로 논문 작성 및 연구 내용 발표에 초점을 둔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신입생 영어 과목에서 실생활 접목 영어를 위주로 배우는

GIST와 차이가 있다. Jennifer 교수는 “GIST와 KENTECH이 추구하는 이공계 분야의 폭과 방향이 조금 다르다 보니 영어 교육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전했다.

KENTECH의 핵심 운영 방식은 RC(Residential College)이다. RC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 이외에도 캠퍼스 내 풍부한 대학 생활 및 글로벌 시대 맞춤 경험 확대를 통한 개인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돋는 시스템이다. RC에서는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의 적응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세미나를 주최하며, 영어 역량의 확대를 위해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 RC’를 운영하는 등 배운 내용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RC 관련 활동은 테슬라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학생들이 일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끈끈해진 GIST와의 협력 관계

지난해 12월 6일, GIST와 KENTECH은 MOU(업무 협약 문서)를 체결했다. MOU 체결에는 분야별 협의체 운영, 교육 및 인력 교류, 연구 개발 및 기술 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관해 윤 총장은 GIST의 AI 특화 기술과 KENTECH의 에너지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연구를 진행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

친 바 있다.

KENTECH은 GIST와 협력해 전남 지역 조강력레이저 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지난해 GIST에 우주레이저 센터가 구축됐고, 고등광기술연구소 초대 소장 이종민 박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조강력레이저 시설 유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고등광기술연구소 내 GIST 교수진 및 KENTECH 측과 레이저 시설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윤 총장은 “조강력레이저 시설이 성공적으로 설립되면, 기존의 GIST 내 조강력레이저 시설보다 훨씬 높은 출력의 레이저를 이용해 공동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학생 차원에서의 교류 가능성도 언급됐다. 지난 5월 17일 KENTECH 내 첫 학생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학부생 단계에서 기존 지식의 틀에 맞추려는 교육을 지향하는 타 학교와 다르게, 질문과 협업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 및 소통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점이 KENTECH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와 Jennifer 교수는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두 학교가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KENTECH은 확실히 인문·사회 면에서는 GIST에 비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외에도 종합적인 전남대 등과 함께 상호보완의 관계를 갖는다면 광주·전남의 과학기술과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 될 것이다”며 소신을 밝혔다. Jennifer 교수는 “영어는 여러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좋은 도구이다. 협업을 통해 GIST와



ALC 강의실. 각 책상에 모니터가 구비되어 있다. (사진 상에는 모니터가 내려가있음)
본원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다.

구성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고, 19일 학생회가 출범했다. KENTECH 학생회 구성 당시

TF로 참여했던 학생 A는 “학생회가 구성되면 GIST 학생들과 문화 교류가 이뤄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또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 간의 협력을 통해 두 학교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GIST와 KENTECH, 마중지봉(麻中之蓬)으로 나아가야

KENTECH 교학부총장 박성주 교수는 KENTECH의 장점으로 새로운 연구환경과 소통 중심의 교육 환경을 꼽았다. 또한 연구 측면에서는 분야를 막론한 종합적인 연구를

KENTECH 간의 영어 및 언어 교류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KENTECH은 개교 초기의 난관을 극복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공과대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며, “다양한 협력을 통해 GIST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두 학교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내비쳤다.

기획

학생 식당 가격 인상, 학생도 식당도 고민 깊어간다



지난 4월부터 제1, 2 학생회관 1층 식당(이하 학생 식당) 가격이 300원씩 일괄 인상됐다. 학생 식당 운영업체는 누적된 영업 손실을 이유로 식대 인상과 조식 선불제 도입을 요구했고, 총무팀과 협의 끝에 인상 가격을 결정했다. 조식 선불제 도입은 수요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다.

인상 폭 300원, 학생 부담 고려해 결정

지난 12월, 학생 식당 운영업체 한빛케터링은 코로나19 기간 중 누적된 영업 손실을 이유로 조식 선불제 도입 및 식대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총무팀과 대학원총학생회,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는 운영업체 측 관계자와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 합의된 인상 가격은 300원이다. 업체는 기존 가격에서 500원 단위의 인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학원총학생회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500원 단위의 인상은 지나치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업체는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300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학원총학생회는 학생 식당 가격 인상과 조식 선불권 도입에 관해 학생들의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 3월 10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가격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 인상이 최종 결정됐다.

코로나 기간 적자 누적, 인상 불가피해

한빛케터링 박종민 부사장은 학생 식당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년간 한두 달을 제외하고 모두 200~250만 원의 적자가 매달 발생했다. 누적된 적자는 3~6,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적자의 원인으로 비대면 수업 기간 이용자 수 감소,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들었다. 업체에 따르면, 일별 학생 식당 이용자 수는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100~150명 가량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근 물가 상승 또한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8%로,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가파른 추세이다. 박 씨는 “그동안 대면, 비대면 수업 전환이 불확실해 인력 조정 등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인건비 지출로 손실이 누적됐다”고 밝혔다.

대학 학생 식당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피해가 더욱 커졌다. GIST는 코로나 기간 중 학생 식당에 대해 임대료 면제 등을 조처했으나, 이를 제외한 정부 또는 학교 차원의 금액 보조는 없었다.

가격 인상에 배달 음식 같은 대체재

를 택하겠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이용자 감소 등 역효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 씨는 “이번 인상 금액은 시장의 경향을 살펴 결정했다. GIST는 그동안 동결됐던 금액을 인상 추세와 맞춰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내 주요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학생 식당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형성됐으며 평균 4,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상안 ‘핵심’ 조식 선불제, 수요 부족으로 무산

이번 인상 협상에서, 업체는 조식 선불제와 조식 메뉴 다양화를 제안했다. 기존 조식 메뉴에 도시락, 토스트, 샐러드를 추가하는 것이다. 조식 선불금은 한 학기 단위로 지불하며, 가격은 13만 원이다. 조식 1회 가격 5,300원 중 학교가 2,800원을 부담한다. 구매한 조식 선불권은 휴학, 기숙사 퇴사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환불받을 수 있다.

조식 선불제는 ‘선택적 의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업체는 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팀은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GIST에 의무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절했다. 대신, 선불권을 신청한 경우에만 의무 식사가 요구되는 ‘선택적 의무제’를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업체 측은 조식 선불제가 학생 식당의 질을 개선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조식 선불제 도입을 통해 식당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재정 손실을 극복할 수 있고, 중식과 석식의 질도 개

선할 수 있다. 학교의 보조금 덕분에 학생들도 부담 없이 질 높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업체와 학생에 모두 이득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식 선불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학원총학생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210명 중 45명(대학생 33명, 대학원생 12명)만이 조식 선불제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설문조사 결과가 예상 수요에 미치지 않는다고 봤고, 결국 조식 선불권 도입은 무산됐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대체로 한 학기 단위의 선불권 결제는 부담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학생 식당 품질, 학생들 요구에 부합해야

최근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학생 식당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박 씨는 대면 수업 조치로 늘어난 이용자 수가 최근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의 식대 재조정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상황이 안정되리라는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식대 재조정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식단의 품질 개선을 약속했다. 박 씨는 “오른 가격에 따라 음식의 질도 오르길 바라는 학생들의 바람을 알고 있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kiboomkim@gm.gist.ac.kr

〈원내식당 만족도 조사〉

학생과 식당의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지스트신문〉은 원내 식당 4개에 대한 GIST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원내 식당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총 44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본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14%p다.

‘2022 원내 식당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자주 이용하는 원내 식당의 만족도는 제1 학생회관(이하 1학), 제2 학생회관(이하 2학) 1층 식당의 이용자 중 각각 48.6%, 38.5%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식당은 2학 1층 식당이었다.

학생들은 원내 식당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으로 ▲맛 ▲높은 가격 ▲같은

식단의 반복 ▲한정된 메뉴 등을 제시했다. 1학 1층 식당의 경우 응답자 74명 중 25.2%, 2학 1층 식당의 경우 응답자 208명 중 26.3%가 ‘맛’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높은 가격’ 역시 1학 1층 식당(17.8%)과 2학 1층 식당(19.4%)에서 다른 두 곳에 비해 많이 지적됐다. 지난 4월 1학 1층과 2학 1층 학식의 가격이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 인상됐으나 음식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학생 식당(이하 학식)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식이 외부 배달 음식을 사 먹는 것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제1 학생회관 식당, “물가 상승과 이용자 수 감소로 재정 부담 누적돼”

대학원생이 주로 이용하는 1학 1층 식당의 경우 2학 1층 학생 식당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설문 결과 ‘약간 만족(35.1%)’, ‘매우 만족(13.5%)’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은 48.6%로, 2학 1층 식당의 38.5%보다 높았다. 학생들은 1학 1층 식당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으로 ▲맛(25.2%) ▲높은 가격(17.8%) ▲같은 식단의 반복(15.0%) ▲한정된 메뉴(12.1%)를 꼽았다.

설문 결과, 학생들의 불만은 음식의 간이 세다는 것과 가격 대비 품질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에 1학 1층 식당 이미경 영양사는 “음식의 간은 최대한 학생들의 입맛에 맞추겠다”고 답했다. 품질에 대해서는 “육류는 직거래, 채소류는 직접 매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신선하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학

1층 식당의 조식과 중식의 일부 식단이 반복되는 문제의 경우, “조식 운영을 잠시 쉬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는데, 식수가 평균적으로 10명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조식 메뉴만을 따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학식 가격 인상에 불구하고 품질이 개선된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이 여럿 있었다. 이에 이 영양사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식당 이용자 수가 반 이상 줄었고, 이용자 수의 일별 편차가 심해 상주하는 직원을 줄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 영양사는 또한 “교수 전용 식당으로 운영되던 1학 2층 식당이 1학 1층과 같은 자율 배식 형태로 바뀌면서 이용자가 분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면제를 제외한 학교 측의 금액 지원은 없어 운영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2 학생회관 식당,

“학생들 의견 적극 반영할 것”

학부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2학 1층 식당의 경우 1학 1층 식당보다 만족도가 낮게 조사됐다. 설문 결과 ‘약간 만족(30.8%)’, ‘매우 만족(7.7%)’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은 38.5%였다. 학생들은 ▲맛(26.3%) ▲같은 식당의 반복(24.1%) ▲높은 가격(19.4%) ▲한정된 메뉴(10.6%) 등을 2학 1층 식당이 개선됐으면 하는 점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식사 중인데 마감 시간이라는 이유로 불을 끈다”, “6시 반까지 운영인데 그 전에 메인 메뉴가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2학 1층 식당 최수지 영양사는 지난 3월부터 식단 구성과 품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학 1층 식당 최수지 영양사는 “메인 음식과 음료로 구성됐던 기존의 중식 식단에 미니우동과 같은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준

식단에 비해 조리해야 할 양이 늘어 식단의 품질을 바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며 점진적인 품질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조식과 중식의 일부 식단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한 번에 많이 만들어야 하는 국은 개선이 어렵지만, 밀반찬의 경우 다르게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식단의 품질 문제는 부족한 이용자 수 등의 이유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 영양사는 “2학 1층 식당의 이용 인원은 평균적으로 월曜일, 화요일, 수요일 기준 조식 50명, 중식 300명, 석식 150명 정도이다. 이는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낮은 수치이며 주말은 이것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은 이용자 수로 인한 어려움을 전했다.

석식 메뉴에 냉동식품이 빈번하게 나온다는 의견과, 학식 비용을 더 인상하더라도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최 영양사

학생 식당 개선사항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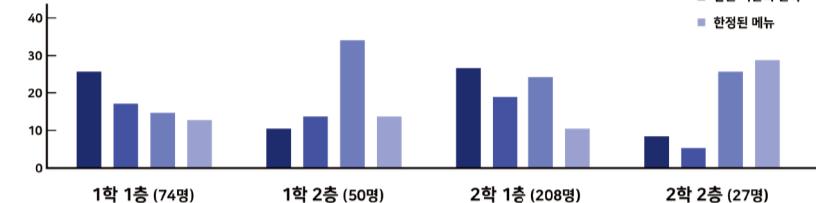
삽화 = 최정은 기자

주요 식사 장소 (GIST 학부생 및 대학원생 449명 응답)

16.5%	11.1%	46.3%	6.0%	20.1%
(74명)	(50명)	(208명)	(27명)	(90명)

■ 1학 1층 ■ 1학 2층 ■ 2학 1층 ■ 2학 2층 ■ 기타 (기숙사, 배달, 외식)

식당별 개선사항 (복수 응답)



는 “냉동식품을 제외하면 제공할 수 있는 메인 메뉴가 닭고기, 돼지고기, 고등어로 한정적이어서 다양한 식단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품질 개선에 대한 의견에는 “물론 학식의 가격을 인상하면 다양하고 좋은 질의 식단을 짤 수 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부담도 분명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을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영양사는 또한 “입구에 게시판을 만들어 학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변진철 기자 byunjc34@gm.gist.ac.kr

해외대학 여름학기 프로그램, 그 속으로 뛰어들다

GIST는 전 세계 다양한 대학과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세계 정상급의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는다. 그 중, 해외대학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지스트신문>은 과거 해외대학 여름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만났다.

흥미에 따라 대학 선택하는 학생들

학생들은 여름학기 프로그램으로 보스턴 대학, UC 버클리, 케임브리지 대학에 파견된다. 2019년에 파견된 김혜진(물리, 18) 학생은 Study Abroad Program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보스턴 대학을 선택했다. 2021년에 파견된 이민서(소재, 20) 학생은 관심사인 경영학 수업이 유명한 UC 버클리 대학을 다녀왔다.

파견을 위한 자격 요건은

TPGA¹⁾ 3.0 이상의 조건을 갖춘 학생은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최소 요건은 당해 지원자 수와 TGPA 편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TGPA가 높을 수록 선발 확률이 높아진다.

영어 성적도 지원 자격에 포함된다. 공인 영어 시험인 TOEIC 785점, TOEFL 80²⁾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김혜진 학생은 TOEIC 점수 885점을 취득했다. 김 학생은 “한 달에서 두 달가량을 영어 성적을 취득하는 데 썼다. 이 정도의 시간은 대부분의 학생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학생은 원내 도서관 웹사이트 Quick Link

의 토익 모의고사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조언했다.

여름학기 파견을 위한 준비는 이렇게

선발 이후, 학생들은 입국을 위한 절차를 준비한다. 먼저, 학생들은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파견 한 달 전에는 비행기 표를 예약한다. 김정희(생명, 20)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준비할 때 함께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 전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학생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파견 전 영어 실력을 갈고닦기를 당부했다.

GIST와 해외 대학의 차이점은

학생들은 파견 동안 겪은 새로운 경험을 소개했다. 김혜진 학생은 “보스턴 대학의 학생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궁금증도 적극적으로 질문했다”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GIST와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UC 버클리에선 매일 동아리 박람회가 열리며, 학생들은 잔디밭에서 휴식을 즐긴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학교로부터 배정받는다. 신유나(생명, 18) 학생은 “보트 타기, 댄스 수업, 특별한 전공 수업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덧붙였다.

해외 대학에서의 일상은

보스턴 대학에서 학생들은 국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아시아 요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김정희 학생은 숙소에서 가까운 한국 식당 한 곳과 인근 일식, 중식, 베트남 식당 몇 곳을 소개했



삽화 = 이경민 기자

다. 학생들의 지출 비용은 보통 한 달에 5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다. 김혜진 학생은 “하버드 대학교와 MIT가 찰스강 건너편에 있다. 야구장과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기숙사 바로 옆에 있으니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UC 버클리에서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근처의 한국 음식점에서 학생들은 순대국밥이나 닭갈비 등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한인 마트도 인근에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은 1인실에서 생활할 수 있고 수건을 비롯한 소모품이 매일 제공된다. 한국 식당의 수는 많지 않으나, 일식과 베트남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해외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파견 학생이 흔하게 겪는 어려움은

시차증이다. 신유나 학생은 “몇 주 동안 시차 탓에 몸이 좋지 않았다. 소통이 원활치 않은 외국에서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구입하기 어려웠다”며 필요한 약을 미리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학생들은 여름학기 동안 많은 시험을 치른다. 김혜진 학생은 “수업마다 세 개의 시험이 있었다. 2주에 한 번꼴로 두 개의 시험을 본 셈이다. 하지만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대학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견문을 넓힐 소중한 기회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입 모아 파견 프로그램에 도전해보기를 당부했다.

1) TPGA는 Term Grade Point Average의 약자로, 평균 평점을 의미한다.

2) 보스턴 대학의 경우 TOEFL 84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5.18 특집

42주년 5.18 기념식 거행, ‘우리는 모두 광주시민’



민주평화대행진에 앞서 기념식 슬로건을 들고있는 참가 행렬의 모습이다.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치러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과 새 정부의 국무위원도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이념을 넘어 광주의 민주 정신을 공유하자는 메시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꾸준히 ‘호남 동행’의 메시지를 꺼냈던 만큼, 이번 기념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기념사의 핵심은 ‘국민 통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치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광주와 호남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위에 경제적 성취를 이뤄야 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시민”이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줄곧 제창, 합창 논란¹⁾에 시달렸던 ‘님을 위한 행진곡’도 한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윤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할 것을 약속했다. 5.18 헌법 전문 수록, 진상규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새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채로운 기념행사로 물든 5월의 광주

광주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5월 한 달을 수놓았다. ‘오월, 진실의 힘

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행사는 광주의 청소년, 청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 행사위)는 14일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추모, 기획, 계승, 시민 공모 사업을 주최했다.

기념행사는 기념식 하루 전인 5월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절정을 맞았다. 17일 낮부터 진행된 ‘오월시민난장’을 시작으로 풍물페 공연, ‘민주평화대행진’ 추모 행렬로 이어졌고, ‘5.18 전야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첫 기념행사인 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동시에 진행된 문화 예술 행사도 돋보였다. ‘오월시민난장’이 진행되는 금남로에서 댄스팀의 경연이 진행됐고, 거리의 부스에서는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시민 참여형 미술 공연이 이뤄졌다. 주먹밥나눔 등 지역 시민들이 진행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5.18 당시 시민 공동체의 분위기를 재현하듯 하나 된 모습을 자아냈다.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민주평화대행진’에는 각계각층 시민, 5.18 피해자 유족과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했다. 수창초등학교 입구에서 시작된 행렬은 금남로 전일빌딩까지 이어졌다. 행렬의 선두에 선 풍물페가 추모의 열기를 더했다.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5.18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외쳤다.

[시민 인터뷰] 미래 세대에게 광주는, 민주 시민 자긍심으로 계승해야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광주 민주화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물었다. 이날 행진에 참여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소속 시민 A씨, 전남대학교 민주동우회 소속 시민 B씨,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시민운동가 C씨를 인터뷰했다.

▶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으셨는지, 광주는 당신께 어떤 의미인가요?

시민 A씨: 당시 너무 어려 기억은 잘 나지 않고, 나중에 간접적으로 배운 세대다. 광주시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광주트라우마센터 부스에 붙은 시민들의 메시지다.

있는 역사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 유혹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가치관을 주는 것 같다.

시민 B씨: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광주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며 그 가치를 배웠다.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얼마나 숭고한 가치가 있는지 느끼게 되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나아가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시민 C씨: 당시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할풍에 살았는데 청년들이 피켓 들고, 버스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던 것이 기억난다. 동네 어르신들이 청년들 잡아가니까 숨으라고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며,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게 됐다. 터미널, 금남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민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무서웠다.

▶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 A씨: 여전히 5.18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일부 있다. 소수의 의견일지도라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

시민 B씨: 당시 민주화운동이나 진상규명에 참여한 분 중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런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시급하다.

시민 C씨: 국민의 인식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 전남 외 지역 시민들이



5월 17일, 전야제를 앞둔 금남로의 모습이다.

나 기성세대는 아직도 민주화운동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에게 진실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광주 민주화운동이 미래 세대에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으면 하나요?

시민 A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자부심이자 정의로운 삶의 동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민 B씨: 형식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지만 성평등, 노동 평등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문제를 안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시민 C씨: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판단의 올바른 기준이 돼야 한다. 역사를 바르게 전달하려는 현세대의 노력이 중요하다.

김기범 기자 kibeomkim@gm.gist.ac.kr
최승규 기자 solomoncsk0225@gm.gist.ac.kr

1) 행사에서 제창(齊唱)은 합창(合唱)보다 참석자의 의무감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일부 보수 단체의 반발로 정치적 논란이 일은 바 있다.



Easing of Covid-19 Obviation, “How is GIST doing?”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measures to restore daily life as the current wave of COVID-19 is receding. In line with this trend, GIST is also easing quarantine measures, including fully allowing in-person classes and opening facilities.

Allowing all in-person classes

The range of permitted in-person classes has expanded from small-scale courses or lab courses to all courses. In May, the Office of Academic Affairs announced this policy and let professors decide the format of the lectures. According to Yuri Kang from the Section of Student Records, about 56% of the lectures are now face-to-face. Students are allowed to sit next to each other, unlike before. However, general quarantine rules such as wearing masks and ventilation should be followed. Ms. Kang said, “GIST's classrooms are often small in size, so if the COVID-19 epidemic worsens in the future and every other seat is vacant, it may be difficult to maintain the current policy”. According to Ms. Kang, in-person classes will be fully allowed during the summer semester if the

COVID-19 situation doesn't worsen. However, she said that the plan for fall semester would be determined aft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 the university's quarantine guidelines.

Opening public facilities and expanded admission criteria for summer vacation

Furthermore, public facilities at GIST are opening. Since May, club rooms, fitness rooms in the dormitory, and community rooms were opened. Also, from June 2nd, the remaining unopened public facilities, such as a swimming pool, yoga room, and the climbing room, will be opened, with the exception of karaoke in the Student Union Building 2. Section Chief Kyungsuk Min in the Section of Student Services said, “For karaoke, there is a high risk of droplet infection as ventilation is difficult in the rooms, and people rarely wear masks when singing.” She added that the operation of the karaoke would be reviewed in June.

Face-to-face student activities also allowed

Starting from May, various student

activities, including club activities, will be conducted face-to-face. As a start, the club room was opened; thus, club activities can be carried out face-to-face.

In line with easing guidelines, increased face-to-face student events are expected. Sehoon Oh from the GIST Culture Events Committee(C&E) explained the vision of future events by saying, “We would like to host more face-to-face events for our students who have been bored over the past two years.” In fact, on May 26, C&E held a “Summer, Night, Camping” face-to-face event. He also declared, “We will reflect the students' opinions as much as possible about the casting of celebrities or large-scale events.” However, Section Chief Min has a prudent stance about the face-to-face event. She asserted, “The school is also aware of the students' desire for lively student activities, which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had dampened. However, GIST should also consider students' safety.” She also implied that there are many variables to consider notwithstanding the quarantine circumstance, said, “The issue of inviting celebrities to the GIST festival

ought to be discussed regardless of the COVID-19 circumstance.”

Some quarantine guidelines are maintained.

However, some quarantine guidelines, such as the ZEUS self-diagnosis system, are expected to remain. Section Chief Icksoo Kim from the Section of Student Services said, “Monitoring health conditions daily and conducting tests when there are suspicious symptoms is very important.” He stressed the necessity of a ZEUS system. “There may be some inconvenience, but please comply with personal quarantine rules and cooperate with the hospital's policy.”

Ms. Kang from the Student Records Section said, “Thanks to students' efforts, GIST has not created a big risk situation due to COVID-19. I hope you continue to follow personal quarantine rules, especially, please follow the minimum quarantine guidelines, and wear indoor masks during class.”

Reporter Junseo Park

(pjalex122@gm.gist.ac.kr)

(translation: Sangwoo Kim, proofreading: Ellis Lee)

GIST Cafeteria Price Increased Due to COVID-19

Since last April, the prices of the cafeterias on the 1st floor of Student Union Buildings 1 and 2 have increased by 300 won. The cafeteria operator requested a price increase because both cafeterias suffered financial losses due to COVID-19 and inflation. This is causing students to worry about their financial situation.

In December, Hanbit Catering, which operates the student cafeteria,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prepaid breakfast voucher and a price increase. Accordingly, the General Affairs Team, and student delegation met the restaurant officials to discuss the plan to increase the price. The operator proposed an increase of 500 won from the previous price. But the student council conveyed the student's opinion that the increase of 500 won is expensive. As a result, the company agreed to lower the increase to 300 won.

The student council conducted two rounds of surveys on students' opinions

regarding the increase in student cafeteria prices and the introduction of prepaid breakfast vouchers. In the second survey undertaken until March 10, the price increase was finally decided, with the majority (54%, 114 people) agreeing with the decision.

Park Jong-min, CEO of Hanbit Catering, explained that it was inevitable to raise the price at the student cafeteria. Park said that for the past two years, accumulated deficit seems to range from 30 million won to 60 million won.

The company cited a decrease in the number of users during non-face-to-face classes and increases in prices and labor costs as reasons for the loss. According to the company, monthly student cafeteria users decreased from one hundred to fifty during COVID-19.

The increase in Korea's minimum wage and the recent rise in food costs affected the price increase. As of April 2022, the rate of consumer price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as 4.8%, the steepest increase since 2008.

The company proposed the mandatory policy for breakfast to maintain income of the cafeteria. However, the General Affairs Team refused to introduce a mandatory policy because it is not suitable for GIST, where most students have to live in the dormitory. Instead, the conference selected as the final draft an 'optional-compulsory policy,' which requires only students who have applied for advance payment to have compulsory breakfast.

Park argued that the breakfast system was a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student cafeterias. "If stable restaurant income is maintain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epaid breakfast, we can overcome financial losses, and the quality of dinner and lunch can be improved. In addition, because there is a subsidy from the school, students can easily enjoy high-quality breakfasts."

It is a win-win solution for both the cafeteria and students."

However, the student's reaction to the breakfast system was cold. Out of 21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ly 45 (33 college students and 12 graduate students) said they would apply for a breakfast voucher. The company realized that the survey results did not meet the expected demand, and they canceled the plan. The student's proposal during the survey was to diversify the payment period for the voucher.

Finally, the restaurant operator promised to improve the quality. Park said, "We are trying to become a student cafeteria that matches GIST's high expectation. I understand students hope that the quality of the food will increase as the price increases. We promise to make changes that students can feel."

Kibeom Kim (kibeomkim@gm.gist.ac.kr)
(proofreading: Ellis Lee)

오피니언

외부칼럼

독일의 노동·연금개혁 교훈 배우자

지난 5월 9일 막을 내린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외면했지만, 독일은 용기 있는 개혁으로 위기를 돌파한 대표적 성공 사례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은 '통일 특수'를 누렸다. 그러나 1992년부터 통일 특수가 줄어들고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1993년에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피폐한 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적자, 사회보험 지출 증가 및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 등으로 불황이 깊어졌다. 유럽 최강자였던 독일은 그 무렵 '유럽의 병자'로 풍자되기도 했다. 위기 상황에서 1998년 취임한 사민당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노사협의체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격한 노사의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져 2003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실업자가 438만 명이나 쏟아졌다. 슈뢰더 총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사회보장제도·산업정책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경제

적 뒷받침 없이는 독자적인 외교와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직된 노동시장 제도와 실업자를 과잉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해고와 신규 채용을 어렵게 했다. 게다가 고령화와 글로벌화, 유럽연합(EU)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독일 경제는 갈수록 쇠퇴해갔다. 슈뢰더 총리는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기업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시장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수동적으로 참여했다.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 사회보장 제도 개혁, 사회보험료 축소 같은 기업 친화적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임금 취업을 활성화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실업자의 취업 노력을 강화하고,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해 연금을 삭감하도록 했다. 슈뢰더 총리는 야당과 노동조합은 물론 사민당 내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정치 생명을 걸고 국가 대수술 차원의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의 개혁을 통해 독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는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 결국 독일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노동조합을 위시한 전통적 지지 세력의 외면으로 2005년 조기 총선에서 참패하고 사민당이 분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슈뢰더 총리의 개혁 기조를 보수당인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계승했고, 결국 개혁에 성공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 11월 의회에서 행한 취임 연설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국가를 위해 개혁을 추진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독일 사례는 국가 이익을 정파 이익보다 우선시해 국가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개혁을 정부 주도로 실시하고, 정권 교체에도 전임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을 계승하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필자는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당시 국정철학 공유를 목적으로 열린 회의에서 국책 연구기관 원장들을 대상으로 독일의 이런 모범적 사례를 소개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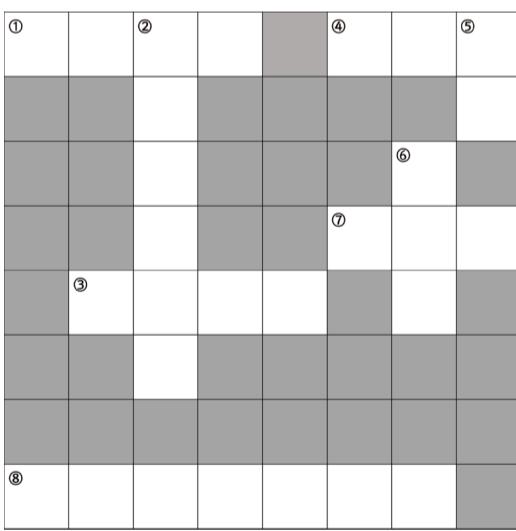
다. 그 자리에서 앞선 정부의 좋은 정책을 선별해서 이어가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한 정책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엇이든 부정하려는 아집과 편견에 놀란 기억이 있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가 방기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에 착수하길 바란다. 동시에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의 관점에서 앞선 정부에 유용한 정책이 있다면 선별해 이어가는 열린 자세도 보여주길 기대한다.



기초교육학부
김상호 교수

십자말풀이



가로

- ① 웹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응용프로그램
- ③ 다른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미분화 세포
- ④ 당사 간의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식 계약을 맺기 전 우선 작성하는 문서
- ⑦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흐르는 강. 보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MIT 등이 모두 이 강을 따라 위치한다.
- ⑧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고 윤상원 씨와 노동운동가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

사

■사임

책임기자 이윤정 (생명, 20)

령

지난호 정답

	빅	P	C	R
데		C		
인	플	래	이	션
프		터	대	S
라			면	
	국	제	수	학
	예	비	창	연
	비	창	업	맹
	예	비	창	기
	비	창	업	지

세로

- ② 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 ⑤ 사용자와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
- ⑥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한국의 증권 전자거래 시장

만평

